

지역 매 아 리

삼례주공 커뮤니티 공간 개소

완주군, 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교통복지 1번지 완주군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유개승강장과 탄소발열 의자를 확대 설치한다.

완주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활용해 내달 말까지 지붕이 있는 버스 유개승강장 28개소와 탄소발열 의자 8개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완주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7년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군 단위 최우수 수상과 함께 급년도 상반기에 포상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

이를 활용해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로 설치될 승강장과 탄소발열의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읍면사무소와의 현지방문, 이용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교통이 곧 복지라는 패러다임으로 노력한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교월동, 여름철 방역 소독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각종 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아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관내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10월초까지 여름철 방역 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다가오며 따라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살인 개미'라 불리는 외래종 붉은 불개미와 같은 각종 해충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해충의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교월동은 일몰 후 전 지역, 특히 관내 주민들의 주거지역 주변 및 하수구 등을 중심으로 매주 1회 각 마을별 연막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월 2회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해충의 완전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이상 기온 및 고온다습해지는 장마철을 대비해 각종 해충 및 전염병으로부터 관내 취약지역을 자주 살피고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일환... 공동체 활동 기대

아파트 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완주군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21일 완주군은 삼례읍 주공2차 아파트 관리동 2층에 27평 규모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 '한내마루' 개소식을 가졌다. 완주군 주민 커뮤니티 21번째 공간이다. 이날 개소식은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윤수봉 군의원, 유의식, 이경애 군의원 당선자, 이은정 공동체 대표, 장세훈 노인회장, 김홍자

이장, 입주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삼례읍 주공2차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으로 수공예, 바느질 등 공동체 활동을 해왔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자 올해 상반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지원과 사업주체인 LH, 주민 공동체, 이장, 노인회, 부녀회, 관리사무소가 힘을 합쳐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현재 삼례 주공2차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으로 바느질, 토탈공예, 전래놀이, 캘리그래피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은정 공동체 대표는 "이곳 커뮤니티 공간에서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파트 르네상스의 핵심은 주민 소통과 화합이다"며 "단지 안의 모든 단체와 입주인이 인사하고 협력해 살아가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당선인 발목잡는 김제시장직인수위원회

자격사비 이어 공무원에 갑질 논란... "명백한 시정 간섭" 지적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의 김제시 장직인수위원회 일부의 자격 논란에 이어 도를 넘는 '갑질 논란'이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김제시장직 인수위와 관련된 언론의 비판 기사에 대해 A 모 인수위원회는 김제시청 B 모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고압적인 자세로 거칠게 따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B 모 간부는 A 모 인수위원과의 전화 통화 후 해당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인수위에서 기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면서 "처음 출발하는 인수위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수위원의 전화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업무 지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제시장직인수위는 말 그대로 박 당선인이 취임해 앞으로 시정을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

이를 두고 김제시 공직사회는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인수위원회가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으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무원 C씨는 "시장직인수위 구성 단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드디어 갑질 사건이 터졌다"면서 "공무원을 '물'로 보는 일부 인수위원의 행태에 대해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공무원 D씨는 "인수위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시정 간섭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갈취하거나 줄을 세우려는 작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이 민선7기 정식 출범을 앞두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시장목표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일 당선인사무실에서 실,국,소 간부급 공무원들과 주요사업 업무보고 자리를 갖고 현안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은 박 당선인은 "정의로운 김제 시민의 시대" 모토에 맞게 권위적·형식적인 보고방식을 지양하고 창의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

특히 지평선산단,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점을 파악, 부서의 의견을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적극 경청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든 사업예산에 대해 투자승수효과를 검토해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전결규정을

대폭 정비해 시장결재 권한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시장·국소장 책임 하에 업무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업무편람을 재정비해 업무의 연속성 및 직인별 업무량을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18년 제3회 청소년어울림마당행사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검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토요일에는 알차게 즐기자"

제3회 김제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놀이 체험장인 2018년 제3회 청소년어울림마당행사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검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어울림마당은 특색블럭·청소 천연 버무리 만들기 체험, 아이싱쿠키·팥빙수·샌드위치 등 다양한 먹거리체험, 동아리(자율)공연, 이벤트 게임(청소년·관람객 참여형 이벤트 게임)등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지역에 상관없이 청소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일 관람객을 위한 즉석 장기자랑 시간과 공연마당 특이 레크레이션 및 놀이마당을 알차게 기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참여하고, 즐기는 청소년의 축제로서 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농업인대학, '한마음 워크숍'

재학생 90여명 참여... 미래농업·힐링푸드 특강

완주군이 농업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미래 농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1일 완주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총남 보령에서 농업인대학 재학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4차산업 혁명과 미래농업', '신나는 농촌, 즐거운 웃음', '건강 100세 시대-맞춤 힐링푸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대상자들이 팀빌딩 로인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대학 학생 간 열린 경쟁 속에서 조별 단결력을 키웠고, 저녁식사 이후 펼쳐진 화합 한마당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만들어졌다.

아울러 재학생들은 '봉이네 벌꿀농장'을 방문해 생산 가공 체험을 통

한 6차산업의 성공 사례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종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대학 학우간에 즐거운 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농업인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결속해 농도피아 완주 건설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보다 체계적인 농업인대학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농업인대학은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12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95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시설딸기과 32명, 소설마케팅과 20명, 친환경채소과 20명, 체험농업과 33명을 선발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